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

주제: 대만의 일본 연구-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의 첫 시간으로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여받은 서흥경(徐興慶)총장이 「대만의 일본 연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 총장은 먼저 본 수업의 개설 동기에 대해 언급한 후 이어서 일본 연구의 정의와 대만의 일본 연구 역사 흐름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서 총장이 직접 기여한 일본 연구 공헌을 예시로 들며 대만에서의 일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연구란 무엇인가? -세계적 관점

서 총장은 대만의 일본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1972 년 대만·일본 양국의 단교 이후에도 경제·문화·교육 방면에서 여전히 두 나라가 긴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연구와 일본어 교육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연구 분야이다. 1962 년 본교의 동방어문학과-일본어과 설립은 국내 일본어과의 시작이 되었다. 현재 대만에는 40 개의 일본 관련 학과가 있으며, 일본어 교육의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 못지않은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일본 연구까지 이어지는 고등 교육 플랫폼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 연구의 정의를 토대로 일본 연구를 크게 「일본학 (Japanology)」, 「일본어 연구 (Japanese Studies)」, 「일본 연구 (Japan Studies)」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일본학」은 일본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의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일본 에도시대 때 나가사키에 거주하던 네덜란드인이 요코하마에 일본 아시아학회를 설립하면서 발전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 연구」는 즉 일본

관련 연구들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19 세기 후반의 일본 연구는 대부분 일본 연구 자체의 신비성과 이국적인 측면에 집중했다. 미국은 일본군이 진주만을 습격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일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인류학자인 루스 베니딕트는 미국 정부의 위촉으로 일본 연구를 시작하여 대표적인 서적인 《국화와 칼》을 집필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의 사고 방식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 책이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내용을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하다. 70 년대 미국은 일본의 정치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인 힘을 쏟았다. 80 년대 후반에는 「일본을 다시 탐구하자」라는 주장을 내세운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 총장은 이어서 유럽·미국·아시아 지역의 일본 연구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전 세계의 일본 연구가 「사회과학」, 「인문과학」, 「언어문학」에서 각각 35%, 35%,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연구가 균형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일본 연구-회고와 발전

대만의 일본 연구는 대만과 일본이 정식 국교를 맺은 1952 년~1972 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 시기의 연구는 대만과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 무역이 주를 이루는 반면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73 년부터 2006 년까지 지속됐다. 대만·일본의 단교 이후, 기존 연구의 방향에서 벗어나 주로 학교나 연구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인문연구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90 년대 중반 일본은 스미토모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류 협회를 중심으로 「일본·대만 교류 센터」를 설립해 식민지 시기의 문헌들에 주목했다. 대만에서도 중앙연구원의 「동북아시아 지역연구」가 진행됐다. 2010 년 서 총장은 대만 내의 일본 연구 가능성을 발전시키고자 「대만과 일본 간의 상호 이해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연설에는 일본 문화청 장관 아오키 다모쓰(青木保)를 초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연구의 중요성, 대만의 성과 높은 일본어 교육과 인재 통합,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협력 및 세계 각국 연구 기관과의 수평적인 관계 유지, 인문 및 사회과학의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언급했다.

대만의 일본 연구- 연구의 추세 파악 및 상호 협력

서 총장은 현재 대만의 일본 연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연구 조직의 분산, 일본어 교육과 일본 연구의 연결성 결여, 진학 루트의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등을 언급했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역사인식과 영토분쟁으로 인한 대립, 코로나 19 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대만은 지진, 재해, 어업권, 의료 등에서 일본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각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협상에 부합한 인재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서 총장은 「타산지석」을 교훈으로 삼으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금의 대만 고속철도는 일본 신간선(新幹線) 시스템을 따온 것이며 일본의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문제를 거울 삼아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을 걸으며 드러난 면만 보는데 그치지 말고 서로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직면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일본 연구-현재와 미래

대만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설립에 힘써온 서 총장은 차세대 일본 연구자, 인문 및 사회과학의 소통, 학술 네트워크 구축 마련에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①전국 대학원생 연구 캠프 ②일본학 연구 총서: 현재 35 권이 출간됐는데, 이는 대만의 시각으로 일본을 탐구한 독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국제학술포럼:

일선에서 크게 활약 중인 연구자들을 초청해 국제학술포럼을 진행했다. 그중 대만 각 대학에서 진행한 일본연구포럼(2015), 제 4 차 동아시아 일본 연구자 협의회(2019), 제 6 차 아시아미래포럼 사전회의(2021)는 대만 내 일본 연구 가능성 향상, 젊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더 나아가 학술 네트워크 구축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강연 후반부에서 서 총장은 일본 연구의 미래 전망에 대해 공동연구 모색, 인재 육성, 전 세계와 공유하는 대만의 일본 연구, 국가 주도의 「일본연구센터」설립, 인문사회·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 등 5 대 분야의 통합을 제안했다. 대만과 일본은 정치·외교·법률·국방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반면, 문화·관광·교육·산업·경제 분야에서는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대만에게 있어 일본 연구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실질적인 관계 향상, 대만·일본 학술 교류 플랫폼 구축 등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정부는 양국 관계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하며 젊은 학생들의 인재 육성을 장려하고 대만과 일본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번역: 류혜랑(柳慧朗)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